

먹고 놀고 경험하는 '꿀잼도시 광주' 한 걸음 더

영산강 100리 Y프로젝트 구체화...자연·문화예술·스포츠 스토리텔링 물 역사 체험관·옛 서창포구 조망대 설치...야구·축구 관람 마케팅도

민선 8기 들어 '꿀잼·활력도시' 구축 사업에 나서고 있는 광주시가 2024년에는 '영산강 100리 Y프로젝트 사업'을 구체화하고, 자연과 더불어 먹고, 놀고, 즐기고, 경험하는 역사이팅 도시 조성역량을 집중한다.

시는 특히 무등산국립공원과 지역연고팀인 광주FC, KIA 타이거즈를 묶어 스포츠(Sports)와 휴가(Vacation)를 함께 즐기는 '스포츠케이션'의 새로운 명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맑은물, 역사이팅, 에코, 연결의 4대 가치를 담은 Y프로젝트의 기본

구상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는 사람이 숨 쉬고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상생의 영산강 시대를 열 Y프로젝트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옛 서창포구에 10억원을 투입해 놀이, 역사, 바람을 감상할 수 있는 감성조망대를 서창역사체험공간에 맞춰 선보일 예정이다.

또 올해에는 영산강 역사이팅 꿀잼라인의 핵심인 아시아 물역사 테마 체험관과 자연형 물놀이장, 인공서핑장 조성 등을 위해 설계비 24억원을 투입하고 설계공모를 실시한다. 이어 황룡강의 생태자원과 어우러진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황룡강 생태여가 레저라인' 사업에도 설계비 5억원

을 투입한다.

Y100리길 연결의 핵심사업인 Y-브릿지 조성 사업도 영산강과 황룡강의 단절된 길 연결의 가치를 넘어 균형발전 이전에 대비하고 대표 명소화를 위해 디자인 공모비 8억원을 투입, 디자인 방향과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57년만에 정삼부를 개방한 무등산국립공원도 상시개방구간을 중심으로 탐방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상시개방 구간은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부대 후면 옆을 지나 인왕봉 전망대까지 390m 왕복코스이며, 지난해 9월 이후 무등산 인왕봉 정상부를 찾은 탐방객은 2만8731명에 이른다.

무등산을 둘러봤다면 지난해 돌풍을 일으킨 광주FC와 최근 인기구단인 KIA 타이거즈의 경기를 감상할 차례다.

시는 특히 지난 시즌 K리그1 3위를 기록한 광주FC의 여세에 힘입어 오는 9월부터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2024-2025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코로나19 극복 이후 유행하고 있는 '스포츠케이션(Sportscation)' 열풍을 겨냥하고, 스포츠와 무등산 등 지역 관광테마를 연결하는 스포츠 관광 마케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강기정 시장은 "문화예술·스포츠를 비롯해 맛과 멋과 의의 도시 광주만큼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는 도시는 없다"며 "스토리를 기반으로 3000만 도시 이용인구를 반드시 달성하고, 꿀잼광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268억 투자 유치 8개 기업 협약...158개 일자리 기대

2024년 새해에도 전남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미래첨단산업에 이어 이번에는 식품 및 기능성 화학 제조업체 8곳이 전남에 128억원을 투자하는 서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158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29일 목포, 광양, 영광, 장흥, 4개 시·군과 협력해 케이푸드 식품 및 기능성 화학 제조업 등 8개 기업과 서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식품, 이차전지, 항공우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케이푸드 식품 및 기능성 화학제품 등 제조업 분야에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협약에는 (유)은성산업, 해성테크(주), ㈜삼우전자, ㈜정남진푸드, ㈜정산에식품, 어업회사법인 푸른수산(주), (유)해우산업, ㈜우성산업 등 8개 기업이 참여했다.

은성산업은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50억원을 투자해 선박 내 보온재를 제작할 공장을 신설한다. 해성테크는 광양 익신일반산업단지 25억원을 투자해 철구조물, 산업기계, 저장탱크 등 제조설비를 제작하는 공장을 신설한다. 삼우전자는 지난해 5월 16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한 이후 같은 지역에 추가로 투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문화재 9건 지정 불상·조선시대 비·고문서 등

전남도가 불교조각과, 조선시대 비, 의병 유물, 고문서류 등 총 9건을 문화재로 지정했다.

문화재 가운데 '장성 백양사 청류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장성 백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소조시왕상 일괄', '장성 기효간 종가 고문서', '장흥 척사운음비', '영암 도갑사 청동문수동자상', '구례 개성왕씨 소장 정유재판 관련 유물' 등 6건은 전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또 '구례 개성왕씨 소장 정유재판 의병 현상 고문서', '장흥 백사역찰방 기념비', '장흥 도호부사 기념비', 3건은 전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됐다.

'장성 백양사 청류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1688년 수화승(首僧) 자규를 비롯해 태순, 진찬 등이 참여해 조성한 불상이다. 조각기법이 우수하며 조선 후기 불교 조각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다. '장성 기효간 종가 고문서'는 장성 행주 기씨 기효간 종가의 1000여 고문서다. 1400년대부터 기록이 전해져 제도사·사회사·지역학 연구의 귀중한 자료다. '영암 도갑사 청동문수동자상'은 도갑사 발굴조사에서 출토됐다. 조형적·예술적 가치가 매우 크며 보물로 지정된 목조 문수보현동자상과 비교 연구할 수 있어 학술적 가치도 높다. '구례 개성왕씨 소장 정유재판 관련 유물'은 개성왕씨들의 정유재판 당시 의병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 5·18 민주묘지 참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직자들(왼쪽)과 전남도당 당직자들이 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여성친화마을' 함께 만들어요

성평등 마을공동체 22일까지 공모...10개 마을 사업비 지원

광주시는 "2024년도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할 마을공동체를 오는 22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은 성평등한 마을이 모여 성평등한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2012년부터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71개 성평등 마을을 발굴하는 등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광주시 5개 자치구 모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여성친화도시란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한 성평등 시·군·구로, 지정기간은 5년이다.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 지원대상은 광주에서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다.

광주시는 올해 10개 내외 마을을 선정해 마을들 새들봄, 지역 여성 일자리 등 마을 실정에 맞는 성평등 사업비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내용은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천 광주시 여성정책팀장은 "시민이 삶 속에서 성평등을 실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마을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신임 경제자유구역청장에 선석기씨

광주시는 "민선 8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을 이끌 새로운 수장으로 선석기(사진)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을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선 신임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33년간 근무했으며, 중견기업본부장과 고객서비스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투자유치분야 전문가다.

선 청장은 앞으로 3년간 광주경제자유구역이 혁신성장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등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선 신임 청장은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인공

지능(AI) 중심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며 "미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광주의 신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3년간 기반 구축이 된 만큼 이제부터는 광주의 신경제지도를 잘 그려야 할 때"라며 "광주시와 경제청이 협업을 통해 전략을 마련하고 실속 있는 광주경제의 먹거리를 쟁길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새로운 세대의 만남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

조선대학교병원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2028년 새병원 개원 예정]

[조선대학교병원 새병원 조감도]
[의료광고심의필 제230412-중-152531호]

CHOSUN UNIVERSITY DENTAL HOSPITAL

조선대학교치과병원

CHOSUN UNIVERSITY DENTAL HOSPITAL

공감과 소통으로 함께 성장합니다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은 세계수준의 교육, 연구를 통한 의도기술의 향상과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한 양질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62)220-3800 홈페이지 http://dent.chosun.ac.kr